

비즈쿨 창업동아리 ③ 양 계

질 좋고 신선한 계란 '학정란' 유통

사육, 생산, 판매 등 전 과정 학생들이 직접 참여



양계동아리(반장 임학빈) 학생들이 양계장 앞에서 이광호 교장과 협승해 지도교사와 함께 포즈를 취하고 있다.

포천종합고등학교 계사는 육추사와 산란계사로 시달되어 있다. 육추사에서는 병아리를 기르고 산란계사에서는 알을 낳는 닭을 기른다. 또 여러 가지 기능닭과 기능계란을 실험하여 학생들이 여러 가지 실습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다. 양계를 위한 자동화시스템 등 최신식 시설을 갖추고 있는 학교시설

을 이용해 창업아이템을 개발하고 실제로 심심한 계란을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여 수익을 올리고 있는 비즈쿨창업동아리 '양계동아리' (반장 임학빈)을 찾았다.

포천종합고 양계동아리는 협승해 교사가 지도하며 10명의 반원으로 구성돼 있다. 하루일정을 보면 사료주기-급수기확인-사료 고르기-계

란판매-알 선별하기-사료주기 순으로 진행된다.

축산과 양계전공학생들이 계사를 관리하며 양계동아리는 주로 유통에 비중을 두고 활동하고 있다. 질 좋고 신선한 계란을 소비자에게 직접 공급한다는 유통전략을 세워 꾸준히 판매한 결과 난골 고객도 있어 판매량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또 질 좋고 신선한 계란을 제대로 알릴 수 있는 포장디자인도 새롭게 연구하여 더욱 많이 판매하여 수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현재는 '학정란' (학생들이 정직하게 키운 닭이 낳은 계란)을 포장 케이스로 활용하고 있다. 이것도 학생들에게 공모하여 가장 좋은 이름으로 정한 것이라고 한다.

임학빈(축산과 3년) 반장은 "창업동아리를 세운지 2년째를 맞이하여 다양한 노력을 전개하고 있으며 훌륭한 후배들을 양성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출 수 있도록 다같이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양계동아리 강세라(축산과 2년)

학생은 "대학에서 경영학을 전공하여 친구들과 창업을 할 계획"이라며 "한우를 정부지원사업으로 추진하고 양계는 부업으로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것은 양계만으로는 수익창출이 어렵다는 판단에서 나온 것으로 한우사육을 주요사업으로 정하고 양계는 부업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양계동아리 한승해 지도교사는 "학생들은 교과과정과 연계된 학교 기업 양계동아리 활동을 통해 창업과 산업현장에서 필요한 지식, 기술 및 태도 등의 직업능력을 습득할 수 있다"며 "학생들 스스로 사육에서 달걀의 생산, 판매 등의 전 과정에 직접 참여함으로써 기업가 마인드를 자연스럽게 체득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학생들 스스로 기획, 판매까지 책임지고 수익을 발생시키기 위해 노력하는 활동을 통해 도전의식과 자신감을 얻고 있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교사 탐구

19

이동초등학교 교사 김보금



교사의 가르침이 보기 좋아 교직에 입문하게 된 이동초등학교 김보금(29.사진)교사는 고향을 지키는 교사로 알려져 있다. 또 학생들과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교사로 유명하다. 학생들과 많은 시간을 보냄으로써 학생들이 체험을 통해 새로운 사실을 배울 수 있도록 지도하고 있는 교사다.

이동공부방에서 지급하는 장학금을 부모님의 만류로 받지 않았지만 고향의 후배들에게 보다 나은 교육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김 교사를 이동초등학교에서는 비람직한 교사의 표본으로 자랑하고 있다.

김 교사는 이동초등학교와 이동중학교, 포천고등학교를 나와 춘천교육대학교를 졸업하고 1999년3월 10일 도평초등학교로 첫 부임하여 4년간 근무했다. 이후 모교인 이동초등학교에 부임하여 학생들 지도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김 교사는 교직에서의 가장 큰 보람은 역시 잘하는 아이들을 더욱 잘하게 지도하는 것도 있지만 조금 부족하고 잘 못하던 아이들을 잘 할 수 있도록 지도하는 것에서 더욱 큰 보람을 느낀다고 한다.

바로 무언가 해 낸 것 같은 뿌듯함이 교육의 보

고향의 학생들에게 다양한 체험 교육

'학생들의 교육·놀이 공간 제공해줘야 한다'

랍이라고 생각한다는 김 교사는 그러나 교육은 그 효과와 당장에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항상 고민하고 연구해야 함을 강조한다.

안타까운 것은 초등학교를 졸업한 후에 비뚤어지는 아이들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해주지 못할 경우다. 조금 더 잘 해 주었다면 내내심을 가르쳐주었다면 용기를 갖고 환경을 극복할 수 있었을텐데 하는 아쉬움도 있다고 한다.

그러나 가정환경도 중요하다. 아무리 학교에서 제대로 된 교육을 한다 하더라도 가정에서 뒷받침해 주지 못한다면 교육의 성과가 나타나지 않기 때문이다.

이동공부방의 장학금을 받지 않았던 것에 대해 김 교사는 "장학생은 어렵게 노력하는 학생이 받아야 한다"고 부친의 가르침에 따라 받지 않았다고 한다. 더 어렵고 힘든 학생들이 장학금을 받아야 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동공부방 장학금은 이동초등학교 이동중학교를 나온 학생들에게 교내나 의대, 서울대 등에 입학하는 학생들에게 4년간 전액 등록금을 지원해주는 것을 말한다.

김 교사는 평소 정직하고 담당해야 한다를 교육철학으로 삼아 교과과정에 충실한 수업을 실시해 나가고 있다. 먼저 기본에 충실하고 환경에 변화에 따라 적절하게 변형에 나가야 한다고 강조한다. 기본에 충실하고 나머지는 체험학습을 통해 용기를 배울 수 있도록 지도하고 있다.

기초를 모르고 기본에 충실하지 못하는 학생들은 별도로 나머지 공부를 시키고 있는 김 교사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제대로 알고 다음 학년에 올라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도하고 있다.

개별적으로 부진한 아이들을 집중적으로 지도하여 아이들의 개별차이를 극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수업이 끝난 후 교육과정 부진학생들을 모두 남겨 1명씩 일대일 교육을 통해 그 과정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또 김 교사는 학생들과 함께 어릴 때 해 봤던 모든 경험을 학생들과 함께 공감할 수 있도록 한 번

씩 해보고 있다. 학생들과 함께 썩떡 해먹기, 맛있는 음식 함께 만들어 먹기는 물론이고 국망봉 등산하기 체험을 해본다.

이같은 체험활동을 통해 학생들이 그동안 모르고 살았던 자신의 장점을 찾아낼 수 있으며 이것을 자신의 장점으로 생각하고 더욱 멋지게 성장할 수 있는 요소가 된다.

아울러 김 교사는 본인이 알고 있는 것과 그동안 배운 것들 모두를 학생들에게 전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1박2일, 2박3일만에 걸쳐 여행체험도 실시하고 있다. 보다 더 많이 알려주고 싶다고 한다.

내고장에서 한 번씩 체험하게 해 보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김 교사는 만족하고 감사해야 할 점도 찾아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것은 주어진 환경에서 성실하게 열심히 하는 것보다 일맥상통한다.

현재 이동면 잠자리 지역은 이동갈비 음식점이 줄을 잇고 있는 상업적 환경으로 학생들의 공부와 는 큰 거리가 있는 환경이다.

따라서 아이들의 교육환경은 물론 스포츠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인라인스케이트나 자전거를 타고 놀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 주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김 교사는 앞으로 계획에 대해 "저를 거쳐간 아이들이 범죄자가 되지 않고 좋은 가정을 꾸려가길 바란다"며 "성실하게 만족하고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을 교육할 수 있는 교사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한다.

이동에서 태어나 이동에서 초·중학교를 나온 김 교사는 앞으로 정년퇴직 할 때까지 고향을 떠나지 않고 후배들을 지도하기 위해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고향을 지키는 교사들이 하나 둘씩 늘어날 때 이동초등학교에는 초임교사의 숫자가 줄어들뿐만 아니라 교사의 이동이 줄어들어 양질의 교육이 기대되고 있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창업동아리 비즈-플라워 은상 수상

포천종합고 창업아이템 부문에서 임혜은 신미소 학생

경기도 상업계고교 정보능력경진대회 창업아이템 부문에 참가한 포천종합고등학교(교장 이광호) 창업동아리 비즈-플라워(지도 한은경 교사) 임혜은·신미소 학생이 은상의 영예를 안았다.

창업아이템 부문에서 모두 38개 팀이 참가한 가운데 개최된 정보능력경진대회는 대상 1팀, 은상 2팀, 동상 3팀등으로 시상한 것으로 알려졌다.

은상을 수상해 경기도교육감상을 받은 임혜은·신미소 학생은 이번 경진대회에서 웰빙과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현대인들의 욕구충족과 들꽃을 이용한 고품질 수공예 제품으로 수익을 창출한다는 '프린세스 플라워' 창업 아이템을 소개했다.

'프린세스 플라워' 회사의 핵심적 특성으로는 지역적 특성을 활용한 우리고장 들꽃을 채취해 고부가가치 상품을 만들어 수익을 창출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1년 매출액 1억8천만원, 당기순이익 1천242만원의 규모의 '프린세스 플라워'를 운영하겠다는 창업아이템으로 구성돼 있다.



경기도 상업계고교 정보능력경진대회 창업아이템 부문에 참가한 포천종합고등학교(교장 이광호) 창업동아리 비즈-플라워(지도 한은경 교사) 임혜은·신미소 학생이 은상의 영예를 안았다. (왼쪽부터 이광호 교장, 임혜은·신미소 학생, 한은경 지도교사)

지난 17일 경기도과학교육원에서 개최된 시상식에서 은상을 수상한 임혜은 학생은 "한은경 선생님과 신일호 선생님께서 열심히 지도해주신 덕분에 좋은 상을 받게 되었다"며 "이번 경진대회를 통해 우리 학교를 빛낼 수 있어서 기쁘고 빛

난 사람이 저와 미소라는 점이 더

욱더 뿌듯하다"고 밝혔다. 포천종합고등학교는 비즈쿨 시범학교로서 8개의 창업동아리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번에 창업아이템으로 은상을 수상한 임혜은·신미소 학생은 창업동아리 비즈-플라워에 소속된 학생들이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윤종성의 미륵어파라하기

13. 뭣쯤 부탁해도 될까요?
Would you do me a favor?
우유두미어 헤이바?

*[원데이] 말씀하시지요.
Please, My pleasure.
플러스, 마이프러져.

14. 이 책 다 보셨나요?
Have you done this book?
해뷰던디스부?

*[이직(인데이)].
Not yet, Sorry.
낫시엿, 소리.

문의 : 윤종성
(017-723-4977)calyoon@nate.com

한국에서 두번째 전통있는 양평해장국

—양평해장국은 맛이 다릅니다—

전통의 맛 그대로 담백한 육수에 순수 국내산 한우내장과 엄선된 양질의 재료 사용으로 맛이 탁월합니다



여름 특선메뉴

삼삼밥/제육볶음+비빔밥/찌개+찬종류=6,000원

- ☐ 냉면
- ☐ 칼국수
- ☐ 잔치국수
- ☐ 양평돌솥해장국
- ☐ 수육
- ☐ 버섯해장국
- ☐ 내장탕
- ☐ 버섯전골

포천시 가산면 방축리 43-3

예약문의 031-544-3837 대표 김지영